

## 조선과 동아시아, 그 만남의 자취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30일 학술회의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소장 이영호)가 오는 30일(목)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조선과 동아시아, 그 만남의 자취'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인문학국(HK) 동아시아한국학연구단과 BK21 동아시아한국학 교육·연구 및 네트워크 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회의이다.

인하대 한국학연구소는 인문학국(HK)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시아 상생과 소통의 한국학'이라는 아젠다 아래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전통시대 국경을 넘어 동아시아의 경계를 주유했던 인물들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 세계에서 전개되었던 '인간' 소통의 자취를 추적한다.

명나라와 조선의 건국 이래 동아시아 각국은 해금(海禁)정책 하에 제한된 공식적 교류만 했을 뿐 그 이전 시대나 서구에 비해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별로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안에서 다문화사회를 운위할 만큼 세계 각국, 특히 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가

활발해진 지금,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어떤 인적 교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연구가 요청되고 있다.

1부에서는 '생활세계 속의 대륙'을 주제로 우경선(인하대 HK교수)·김선민(성균관대 HK 연구원)·김영진(계명대 교수)·배우성(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만주로 월경하거나 귀화했던 조선인, 중국과 조선을 오가며 책을 수입했던 상인 등 압록강을 건너 중국으로 건너갔던 다양한 유형의 인물의 자취를 추적해 본다.

2부에서는 '바다를 넘어선 접속'을 주제로 이훈(동북아역사재단 연구실장)·김호(경인교대 교수)·윤대영(인하대 HK연구교수)·이희환(인하대 HK연구교수) 등이 교류, 외교 사절단 등이 일본인과 베트남 사신들과 교류했던 자취, 그리고 역명에 실패하고 일본·중국을 떠돌았던 김옥균에 대해 동아시아의 소설들에 나타난 양상에 대해 논의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준갑(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한명기(명지대 교수), 송미령(전북대 교수), 최병욱(인하대 교수), 황호덕(성균관대 교수), 김태년(인하대 HK교수) 등이 지적 토론한다. ☎860-8475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 정열의 몸짓... "이것이 춤이다"

제 3회 '인다비'...세계 최고 무용가들 참여

국제도시 인천 품격에 맞는 수준높은 무대

세계 수준의 춤 축제가 인천에서 펼쳐진다.

격년제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춤축제 인다비(INDABI)다. 인다비는 '인천댄스 비엔날레(INcheon DAnce Biennale)'의 각 첫 두 알파벳을 조합해 만든 합성어로 푸른 바다와 춤의 열정, 쾌적한 환경 속에서의 축제가 함께 살아있는 도시, 인천의 품격을 업그레이드시킬 고급화된 무대 공간을 지향하는 단체다.

그동안 미국·뉴질랜드·프랑스·스페인 대사관에서 참석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다비와 인천의 이름을 알렸다.

올해는 주한 네덜란드 대사와 프랑스 대

사관 문화교류 담당관과 문화원장, 알리앙스 프랑세즈 원장 부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인천과의 문화 교류를 위해 인다비 공연에 관심을 갖고 참석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안무가 '딜란 뉴콤(Dylan Newcomb)'이 무대에 오른다. 줄리아드 학교에서 무용과 작곡을 전공한 그는 네덜란드 최고 안무상·무용수상, 필립 모리스 상 등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번(Burn)'으로 '공기'·'불'·'물'·'땅'을 각 주제로 한 4개의 작품들로 이루어진 장기 댄스 프로젝트 '라이팅 온 더 월스(Writing on the

Walls)'의 두번째 부분이다. '불'을 주제로 한 솔로 작품이다. 딜란의 작품 세계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몸부림, 젊음·격정의 상실과 같은 불가피한 일들에 대한 순응, 그리고 단조로운 기존 삶의 틀로부터 변화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 등과 같은 인간 존재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 국내 최고의 단체인 '포즈댄스시어터(안무·우현영)'도 초청했다. '악마의 사자'라고 해 한때 대량 포살 당했던 변종의 새 '흑조(Black Swan)'를 주제로 잡았다. 힘겹고 더딘긴 해도 결코 자연에 굴하지 않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흑조를 표현했다. 컨템포러리 재즈의 즉흥성, 서정성, 핑키적인 분절 등 다이나믹하고 강렬한 표현력을 가진 재즈 댄스의 특성을 살려 흑조의 도전적이고 강인한 생명력을 작품으로 표출시켰다.

인천 축제인 만큼, 지역 단체인 '박태희 발레비엔나(안무·박태희)'이 '신들의 산책

(Promenade of Gods)'을 들고 참석한다. 현대 문화 모든 영역의 근간이 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시대를 초월해 술한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신과 인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던 시대를 현대의 관점에서 재조명했다.

김현숙 인다비 대표 겸 인천전문대학 연기예술과 교수는 "서울 중심의 문화를 탈피해 인천에서 격을 갖춘 페스티벌을 준비했다"며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갖는 만큼, 인천 시민들도 주인공 의식을 갖고 공연을 꼭 보러 오시라"고 초대장을 건넸다. 이어 "프랑스의 세계적인 무용가 캐롤린 켈송이 인다비에 참여하고 싶다는 프러포즈를 해왔는데, 예산이 부족해 초청할 수 없어 안타까웠다"고 심정을 털어놓으면서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무용 세계를 알리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지영기자 jyjcho@i-today.co.kr



▲휴식



▲해변

## 윤석범 첫 개인전 '아름다운 섬 연평도'

한국화가 윤석범의 첫 번째 개인전 '아름다운 섬 연평도'가 10월31일(금)부터 11월9일 까지 연수구 동춘동 '갤러리 가운'(인천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연평도등학교 미술교사로 부임한 작가가 3년을 지내며 보고 듣고 체득한 인상을 화폭에 담았다.

서해5도 중 하나인 연평도는 북녘 땅이 뻗어 보이며, '평평하게 뻗은 섬'으로 뱃길로 4시간쯤 걸린다.

작가는 뱃길을 오고가며 또한 아이들을 지도하며 가슴으로 전해지는 생생한 감동

을 그만의 담백한 필치로 그려냈다. '토끼섬' '연평의 봄' '귀항' 등 그의 작품 명제가 그려듯 섬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목격담을 가감 없는 필치로 일기를 적어나가듯 담아내고 있다.

섬에서 변화되는 계절의 변화에 눈길을 주고, 만선의 뱃고동소리에 귀 기울이며 때론 정박해 있는 작은 고깃배에서 어부의 시름을 읽으려 노력했다.

수려한 풍경에 테크닉의 욕심을 버리고, 작거나 보잘 것 없는 삶의 언저리를 구수하게 화면 가득 내보이고 있다.

송정로기자 goodsong@i-today.co.kr

### 인천지하철 4번출구 바로 앞(매자골목) 최대규모 상가

\* 내과, 소아과, 치과, 마을금고 영업중

# 신학프라자

\* 인천광역시 체육회(2층) 입주합

신학프라자

준공필

연수구 신학동  
역세권 新중심 상권

## 미래가치를 분양합니다.

**신학동 상권을 다누리는 특권**

- ◆ 신학동 4번출구 30m 거리!
- ◆ 도보이용이 가능한 인근 12,000세대 든든한 배후고객
- ◆ 일일 선학역 이용 유동고객 10,000여명
- ◆ 신학동 중심 상업지역 개발로 뛰어난 미래가치
- ◆ 신학동 주상권으로 유동고객이 풍부한 대로변상가
- ◆ 가천길대하 4,500명 유입

**권장업종**

- 마트, 편의점, 공용기관
- 이동통신, 치킨, 베이커리, 주얼리, 분식, 신부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대형음식점, 이·미용실, 휘트니스, 설계사무실, 헬스, 한방병원

**중도금 50%용자가능**

**계약후 바로 입점**

**토자+건물 등기분양**

**두영중합건설(주) 분양문의 (032)819-9222**

· 대 지 2,510.40㎡  
· 건 평 6,582.47㎡  
· 전용율 72%

단체연회식, 돌백일회갑집순 등 각종 모임 저렴한 무한리필 메뉴로 가격맞서비스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우 1+

메뉴별 가격	
한우모듬구이 (600g).....	98000원
한우모듬구이 (300g).....	50000원
한우등심구이 1인분.....	25000원
한우안녕갈비 1인분.....	25000원
한우버섯 생불고기.....	15000원
한정식(진수선전).....	28000원
해물우렁쌈밥.....	10000원
돼지왕갈비 1대 (300g).....	12000원

단체 20인 이상 무한리필 메뉴

한우버섯생불고기 1인당 ..... 18000원

한우옛날불고기 1인당 ..... 22000원

**승의가든**에 모든 메뉴는 **한우의 최고등급인 1+ 등급이상만**을 엄선 직접 경매를 받아 **고객님께 최고의 맛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승의가든

**승의가든** ☎ (032)887-5555, 884-2266 주소: 인천광역시 남구 승의동 72-2

정확한 영업으로 가정에서 드실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포장판매 합니다. (한우고기, 한우갈비, 한우꽃등심, 한우사골, 한우족, 돼지왕갈비, 양념불고기 등) 미리 전화 주시면 선별용 포장도 가능합니다.